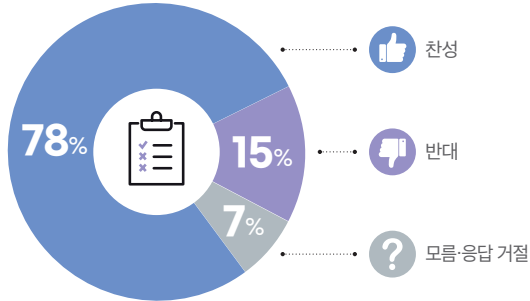


##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동절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귀했다. 지난 4월에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무원,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쉼 수 있게 되었다. 수고로울 ‘로(勞)’와 움직일 ‘동(動)’,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이름처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설문조사 법정 공휴일 지정 찬성 및 반대



출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2026년 4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국제 메이데이의 출발점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한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4~18시간에 이르는 고된 노동에도 심각한 저임금으로 늘 가난에 시달렸다. 거리 시위가 계속되던 5월 3일, 경찰과 시위대가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크게 충돌했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른바 ‘헤이마켓 사건’은 전 세계로 타전되며 세계 노동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그렇게 1889년 프랑스 파리에 20여 개국 노동자 대표 400여 명이 모여 매년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지정한다. 이후 메이데이(May Day)는 전 세계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한민국 노동절의 역사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2,000여 명이 모여 노동 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요구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 행사를 이어오다 1958년부터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의 전신) 설립일인 3월 10일로 옮겨 실시한다.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다. 이후 노동절 이름 복원 활동이 이어졌고,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메이데이로 이원화되기도 했다. 이후 노동계의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이들의 입장을 수용하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확정해 노동자를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 근로자와 노동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는 “근로(부지런히 일함)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시키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노동자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즉,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계는 오랜 기간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근로’라는 표현이 일 제강점기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열심히 일하라’는 뜻을 내포한다는 지적에서다. 여기에 노동자란 단어는 오랜 기간 힘든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북한에서 좋아하는 단어 등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복원을 통해 노동의 뜻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자.

### 노동의 진정한 가치 회복

앞으로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날에도 출근해 일을 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올해부터는 함께 노동절을 즐길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이번 노동절을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